

세계건축의 전위로 떠오른 동북아 전통건축

공간의 투명성이 동북아 건축의 특징...
20세기 현대건축사에 결정적 영향 끼쳐

임석재 |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투명성'은 동서양 건축을 구별짓는 열쇠말이다. 동양의 공간은 투명하지만, 서양공간은 불투명하다. 공간의 투명성이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동양의 공간적 특징은 사상적으로는 불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현대건축은 콘크리트와 철골이라는 새로운 산업재료로 동양적인 공간을 창조하려 했다. 20세기 건축사를 장식한 큐비니즘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동서양 공간의 차이를 결정짓는 가장 큰 기준은 투명성일 것이다. 동양 공간은 투명하고 서양 공간은 불투명하다. 동양 공간의 투명성은 중첩과 관입(觀入)에 의해 얻어지는데, 이는 다시 말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 사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내·외부 공간 사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뜻한다.

'중첩과 관입'이 한국 전통건축의 특징

한 가지는 대청마루나 툇마루같이 내부 공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부공간도 아닌 애매한 성격의 공간이 있는 것이다. 건축 전문 용어로는 이런 공간을 '전이 공간'이라고 부른다. 대청마루나 툇마루는 지붕만 있고 벽이 없기 때문에 외기(外氣)에 완전히 노출돼 있으며 이런 점에서 분명히 외부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하며 세간을 놓기도 하는 등 사용양상으로 봐서는 내부 공간의 성격을 띤다. 대청마루와 툇마루는 이처럼 외부 공간이기도 하다가 외부 공간이 아니기도 하며 내부 공간이기도 하다가 내부 공간이 아니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내·외부 사이의 전이적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한다.

다른 한 가지는 공간 구성에 꺾임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한옥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

한옥은 '一'자형 구성은 거의 없고 최소한 'ㄷ'자형 이상의 꺾인 구성을 보인다. 중정(中庭)이 있는 'ㄷ'자형이 가장 흔하며 풍수지리까지 결부돼 집 규모가 커지면 이런 기본형들이 여러개 조합되면서 한자(漢字) 형태처럼 복잡하게 구성된 경우도 많다. 이렇다보니 집 전체로 봤을 때 이쪽 방에서 문을 열면 중간에 마당이나 외부 공간이 있고 다시 저쪽 방이 나오는 꺾 공간 구도가 형성된다. 이때 마당의 거리가 길어야 몇 미터 정도밖에 안되며 그나마도 방과 방 사이에 끼어있다 보니 이것이 외부 공간인 것 같다가도 방의 연속인 내부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채와 채 사이에 끼인 마당은 대청마루나 툇마루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양면적 성격을 동시에 띤 모호한 공간이 된다.

공간이 투명하다 함은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 사이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이쪽 방과 저쪽 방을 폐쇄적 단절로 보지 않고 개방적 연속으로 본다는 의미며 궁극적으로는 내·외부 공간 사이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한옥의 독특한 구조에 기인한다. 각 방은 보통 두 면 이상이 외기에 면한다. 외기에 접한 면에는 하나 이상의 창이나 문이 있다. 문을 열면 외부 공간이지만 이 외부 공간은 동시에 내부 공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방밖에서

공간은 방안과 칼로 자르듯이 완전히 대별되는 공간이 아니라 방안의 연속이다. 특히 방밖의 공간이 대청마루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렇듯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 사이의 구별이 모호하다 보니 문을 열어서 밖을 내다보더라도 방안과 비슷한 듯하면서 또 조금 다른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쪽 방과 같은 다음 방이 바로 연달아 나오게 된다. 이렇다 보니 밖이 밖처럼 느껴지지 않으며 공간은 끊이지 않고 연속된다. 이를테면 방과 방 사이에 전이 공간이 끼어들면서 공간의 켜가 여러 겹이 되는 것이다. 때로는 방과 방 사이에 직접 통하는 문이 나 있는 경우도 많다. 문을 열면 밖이 아니라 옆방이 나오며 그 옆방을 가로질러 저 끝에 나 있는 문을 통해 밖이 보이게 된다. 수채화를 덧칠해 놓은 듯한 한옥 공간의 이런 특징을 건축가들은 투명한 공간 혹은 중첩과 관입이라고 부른다.

한옥구조에 스민 동양적 '불이사상'

한옥의 이런 공간적 특징은 동양의 전통적인 '불이(不二)사상'을 기본 배경으로 한다. 불이사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본디 하나이듯, 내·외부 공간도 그렇게 하나지 나머지 반쪽처럼 서로 대별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너와 나를 본디 하나로 본 이같은 불이사상의 가르침은 한옥의 공간에서 체험될 수 있다. 한옥은 나무와 창호지로 지어지기 때문에 방안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혹은 간접 의사소통 방식에 의해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방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존재를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방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색하지 않게 된다. 이

에 반해 프라이버시 보호도가 높은 폐쇄적인 방
속에 혼자 있다보면 다른 사람의 존재는 한동안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 끝에 문이라
도 한 번 열고 나갔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
면 상당 시간 끊어져 있던 갑작스런 마주침이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진다. 방속에 혼자 있는 기
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마
주치는 일 자체가 싫어지게 된다. 이런 경험이
한두번 반복되면 서로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투명한 공간을 가진 한옥을 버리고
폐쇄적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면서 가족간에 대
화가 줄어들고 이웃간에 멀어지게 된 이유다.

한옥의 이런 공간적 특징이 형성된 데는 나무
와 창호지라는 전통 건축 재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본적으로 가볍고 자연적인 특성이 있다.
목재와 반투명성이라는 또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는 창호지가 어울리면서 한옥의 공간은 그처
럼 투명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반투명 창호지를
통해 들어온 빛이 방안 가득히 은은하게 넘쳐흐
르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아름다운 건축
적 장면 가운데 하나다. 건축가라면 이미 전설
속의 신화로 없어져 버린 한옥의 이런 아름다운
공간 모습을 현대에 재현하고 싶은 욕심을 한번
쯤 가져본다. 이것은 이룰테면 고려청자의 신비
한 아름다움을 현대에 재현하는 것이 큰 숙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고려청자의 재현이 한
국 현대 예술가에 국한된 문제인 반면 건축의 경
우는 그렇지 않다. 한옥의 공간을 포함하는 동북
아시아의 전통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려는
욕심은 비단 한국 현대 건축가뿐만 아니라 서양
현대 건축가들의 꿈이기도 했다.

동북아의 공간개념이 현대건축에 영향 미쳐

서양의 전통 고전 건축은 흔히 이야기하듯 불투
명하고 폐쇄적인 공간을 특징으로 한다. 그 의미
는 앞에서 설명한 한옥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특
징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20세
기 현대 건축은 이런 전통 고전 건축에 대한 반
발로 시작됐다. 일부 전통주의자들을 제외한 서
양 건축가들에게 고전 전통 건축은 이같은 폐쇄
적 특징 때문에 상당 부분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다. 서양의 전통 고전 건축에서 건물의 내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공간이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벽은 불투
명하고 둔탁하게 폐쇄됐다. 그 안에
서 일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개인사
였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
됐다. 절대왕정의 사악한 권력모의
가 숙덕공론으로 은폐되던 곳도 이
런 불투명한 전공간 속에서였다.
20세기 현대 건축은 한 마디로 콘크
리트와 철판이라는 새로운 산업 재
료를 이용해 고전 건축을 대체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공간을 창
조하려던 작업이었다. 이런 20세기
서양 현대 건축이 완성되는 데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동북아시아
의 투명 공간이었다.

20세기 서양 건축, 더 넓게는 서양
예술을 대표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
가 큐비즘적 다차원 공간이다. 이것
은 고전 건축의 폐쇄적 공간 구획이

3차원 유클리드 기하학을 기초로 한 정형화된
질서의 산물이라는 가정 위에 이것을 대체할 새
로운 공간으로 추구된 것이었다. 이렇게 추구된
큐비즘의 다면체 이론은 한 가지 고정된 상태로
제시되는 3차원보다 콜라주로 구성되는 2차원
조각들의 집합이 현실 세계의 모습에 더 가까운
진실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차원 조각들
의 조합은 한 사물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태를
모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4차원의 상태
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큐비즘에
서 새로운 공간관으로 주장한 이런 다차원 이론
은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한옥의 공간적 특징에
다름 아닌 것이다. 큐비즘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공간관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에는 중첩, 관입, 전
이, 투명 등과 같이 한옥의 공간 특징을 정의해
주는 개념들이 핵심적 내용으로 들어간다. 실제
로 서양 미술사에서 인상파부터 큐비즘에 이르
는 소위 정통 근대 미술 운동은 일본의 전통 회
화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됐다. 이런 영
향 관계는 '야포니즘(Japonism)'이라는 명칭아
래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다. 이처럼 20
세기 서양 현대 예술을 대표하는 다차원 공간론
은 전통 건축과 전통 회화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동양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중첩과 관입에 의해 얻어지는 투명성이다. 이는 동양건축
이 내부 공간도 아니고 외부 공간도 아닌 애매한 성격의 공간, 즉 '전이공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사진은 전이공간의 하나인 한옥의 대청마루.

예술 전체의 공간적 특징을 모델로 삼아 형성된
것이였다.

이런 큐비즘은 피카소라는 거장에 의해 일반
적으로 회화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세
기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등의 건축가나 데
스틸(De Stijl) 건축 등의 추상 아방가르드 건축
운동 역시 큐비즘의 공간관을 기본 배경 혹은 궁
극적인 목표로 추구했다. 이들의 건물은 이룰테
면 회화의 큐비즘 공간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예
로 이해될 수 있다. 위의 피카소 경우와 마찬가
지로 건축의 경우에서도 이들의 큐비즘 공간은
동북아시아의 전통 공간을 모방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제1건축가 라이트는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필라델피아 만국
박람회와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출품한
일본 전통 건축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가 이곳에서 자신의 큐비즘 공간을 완성시
켰다. 이외에도 이들 20세기 서양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큐비즘 공간이 동북아시아의
전통 공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은 이제 건축사에서는 하나의 상식이 됐다. ●